

<표 3-3-46>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 : 양돈

(단위 : 원/두)

순위	구분	평균생산비	비중
1위	사료비	174,551	52.7%
2위	가축비	89,114	26.9%
3위	자본용역비	10,216	3.1%
4위	자가노동비	8,705	2.6%
5위	방역치료비	8,676	2.6%
6위	고용노동비	8,059	2.4%
7위	영농시설비	6,708	2.0%
8위	분뇨처리비	6,652	2.0%
9위	농구비	6,179	1.9%
10위	수도광열비	3,419	1.0%
11위	차입금이자	2,747	0.8%
12위	기타비용	2,124	0.6%
13위	기타재료비	1,996	0.6%
14위	자동차비	1,069	0.3%
15위	토지용역비	779	0.2%
16위	임차료	339	0.1%
합계		331,334	100.0%

양돈 농가의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의 연평균 변화율 산출 결과(2001-2015) 모든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노동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사료비, 분뇨처리비를 제외한 생산비 모든 항목들이 증가하였다.

<표 3-3-47> 양돈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연평균	2014 vs. 2015
1순위	사료비	129,323	51.0%	5.3%	-6.1%
2순위	가축비	69,939	27.6%	4.7%	2.5%
3순위	자본용역비	8,951	3.5%	1.8%	14.9%
4순위	방역치료비	6,561	2.6%	6.2%	2.4%
5순위	자가노동비	6,318	2.5%	12.4%	8.4%
6순위	분뇨처리비	6,040	2.4%	5.8%	-0.9%
7순위	고용노동비	5,981	2.4%	6.1%	11.7%

다. 양계 농가 경영현황 및 생산비 변동 추이

육계의 가격은 소형기준 1kg 당 2001년 1,108원에서 2015년 1,974원으로 연평균 약 33.5% 상승하였다. 가격변동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며, 상승추세에 있었으나, 2010년 이후 약 2,100원 정도의 일정한 가격을 유지한 후 2013년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. 대·중·소형의 변이계수는 각각 15.2%, 14.3%, 13.9%로 나타났으며, 크기가 작아 질수록 가격이 변동성이 낮게 나타났다.